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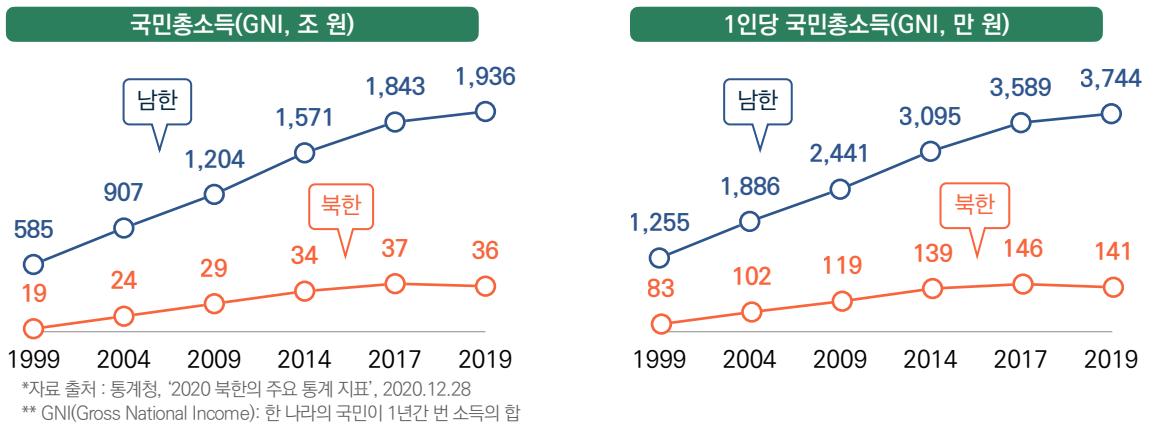
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



북한의 국민총소득(GNI) ‘남한의 2% 수준!’

-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‘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’ 결과에 따르면, 2019년 북한의 ‘국민총소득(GNI**)’은 36조원이었는데, 이는 남한 1,936조 원의 2% 수준으로 남한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저하게 낮았다.
-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‘1인당 국민총소득’에 있어서는 북한은 141만 원으로 남한(3,744만 원)의 4% 수준으로 해마다 그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.
-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7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세를 보여, 유엔 제재 하에서 최근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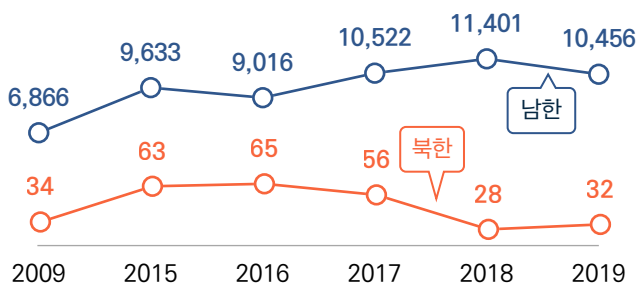
[그림] 남·북한 경제력 비교(연도별, 국내총생산 vs 국민총소득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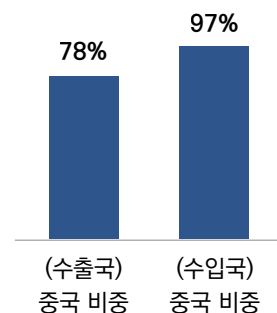
● 2019년 북한 대외 무역 총액, 남한의 0.3% 수준!

- 2019년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32억 달러로 남한(10,456억 달러)의 0.3% 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.
-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2016년까지 상승하였고, 대북 제재 영향으로 이후 대폭 떨어지다 2018년 이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.

[그림] 연도별 남·북한 무역액(수출+수입) 비교 (억 달러)



[그림] 북한의 수출입 대상 국가 중 중국 의존도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', 2020.12.28.(북한은 KOTRA '북한 대외무역동향'
**무역액=수출액+수입액, 남북한 교역액은 제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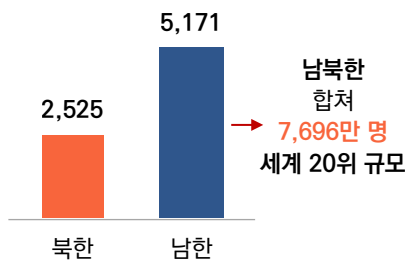
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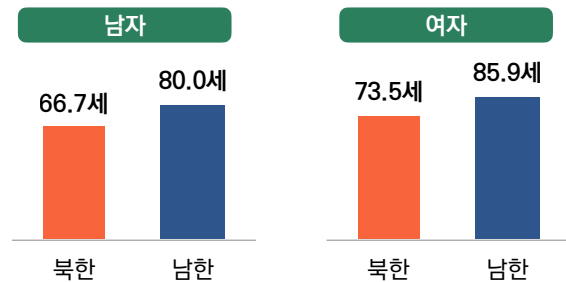
2019년 북한 인구 2,525만 명, 남한의 절반 수준!

- 2019년 북한 인구는 총 2,525만 명으로 남한 5,171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되었다. 남한과 북한 인구를 합하면 총 7696만 명으로 세계 20위 규모이다. 북한의 기대 수명은 '남자' 66.7세, '여자' 73.5세로 남한과 비교하면 '남자'는 13.3세(남한 80세), '여자' 12.4세(남한 85.9세)가 각각 낮았다.

[그림] 2019년 남·북한 인구 (만 명)



[그림] 2019년 남·북한 기대 수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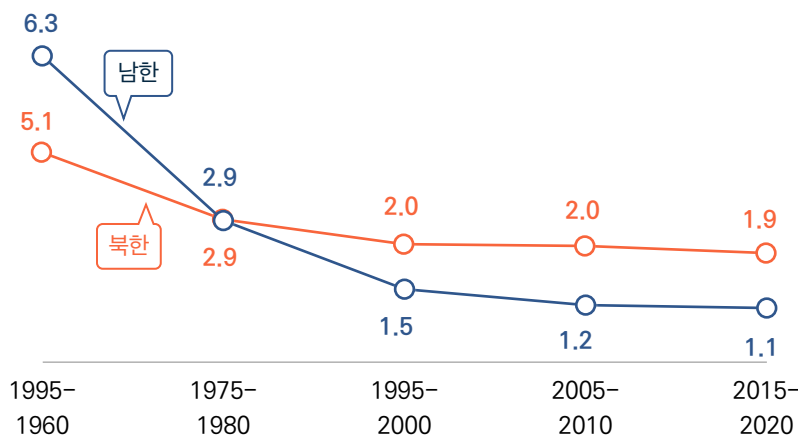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', 2020.12.28

● 북한의 합계 출산율(2015~2020년) 1.9명으로 남한(1.1명)보다 크게 높아!

- UN에서 추계한 북한의 2015~2020년 '합계 출산율'은 1.9명으로 같은 기간 '남한'의 1.1명보다 0.8명 더 높았다. 80년대까지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높았지만 이후 줄곧 북한이 높았다. 양측 모두 '합계 출산율'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.

[그림] 남북한 합계 출산율(연도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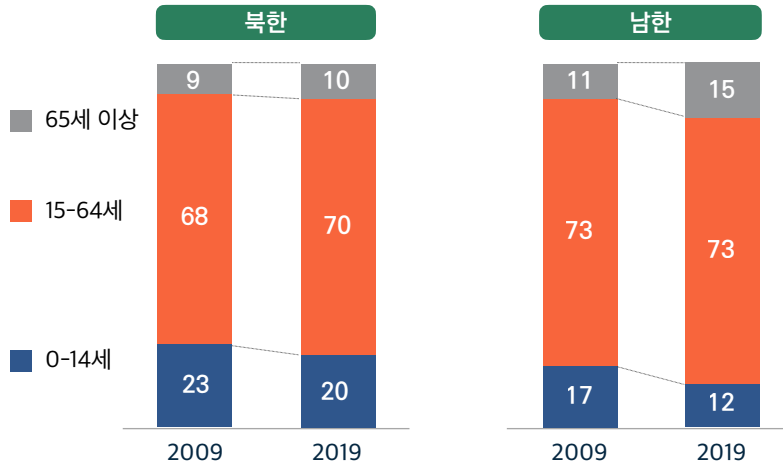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', 2020.12.28.(UN, 'World Population Prospects: The 2019 Revision', 2019.6.17.)

● 북한의 유소년 인구 비중, 남한의 두 배 가까이 높아!

- 2019년 연령별 분포는 남·북한 모두 10년 전보다 '14세 미만' 유소년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, '65세 이상'은 늘어나고 있는데, '14세 미만'의 경우 북한이 남한보다 8%p 높고, 반대로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'65세 이상'은 남한이 북한보다 5%p 더 높게 나타났다.
- 전체적으로 2019년 기준 북한의 유소년 인구 비중(20%)이 남한(12%)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.

[그림] 2019년 남·북한 연령 계층별 인구(2009 vs 2019) (%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', 2020.12.2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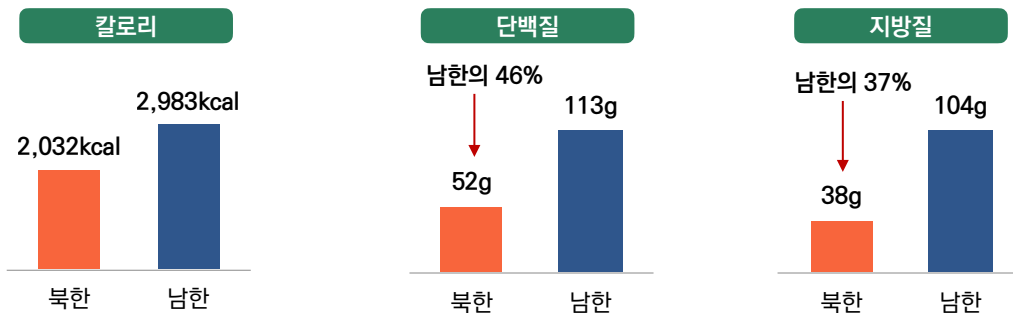
3



북한의 1인당 하루 단백질/지방질 공급량 남한의 절반에도 못미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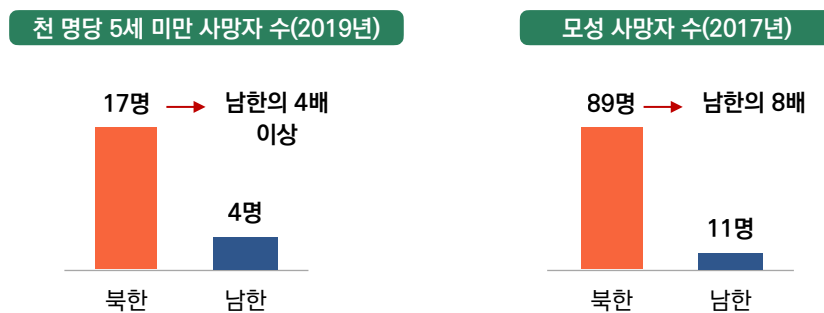
-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, 2017년 북한의 '1인당 하루 영양 공급량'은 2,032kcal로 남한(2,983kcal)의 68% 수준이었다. 특히 영양의 주요 공급원인 '단백질'은 남한의 46%, '지방질'은 37% 밖에 공급이 안돼 전체적으로 남한에 비해 건강 영양 상태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.
- 2019년 북한의 '출생아 천 명당 5세 미만 사망수'는 17명으로 남한의 4명보다 4배 이상 많았고, 2017년 기준 '모성 사망수'(태어난 아기 10만 명당 임신 출산 관련 임신부 사망 수)는 89명으로 남한의 11명보다 무려 8배가 많았다.
- 이러한 통계 자료로 볼 때, 북한은 인간 생명과 관련한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남·북한 1인당 하루 영양 공급량(2017년 기준, 칼로리 vs 단백질 vs 지방질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', 2020.12.28.(북한은 FAO, 'https://www.fao.org', 남한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'식품수급표')

[그림] 남·북한 출산 관련 사망자 수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2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', 2020.12.28.(북한은 UNICEF, 남한은 통계청, 모성 사망 수는 UN, http://unstats.un.org/sdgs)